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과 다양성에 관한 고찰

임영언 전남대학교* ·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거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제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제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초국적 정체성, 다양성, 중국조선족, 일제브라질인, 차별과 배제

* 제1저자 **교신저자

I. 서론

글로벌시대 민족이라는 경계설정과 민족귀속에 관한 논의는 인류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다루어왔다. 거기에는 반드시 개인이 속하는 집단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해석방법이 배제되고 민족집단에 대한 귀속은 주변 상황이나 당사자의 목적에 따라 조작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다. 이와는 달리 민족이라는 범주가 상황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으로써 민족집단을 상징하는 ‘명칭’은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민족집단이 되었건 타자에 의한 외부로부터 부르는 ‘명칭’과 집단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명칭’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이들 가운데 국가에 의한 명칭은 민족범위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이라는 개념구분은 민족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은 국적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이라는 범주의 가변성과 이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유동성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민족의 형성은 국민국가 출현이후의 문제이지만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이동과 이주에 따른 디아스포라 집단이 부각되었고 ‘우리’와 ‘타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민족집단과 국민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민족의 범주가 확대되거나 협소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민족집단의 민족범주의 확대는 정체성의 약화, 민족범위의 협소는 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진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개념은 왜 급속도로 전파되었는가? 정체성 개념의 급속한 전파는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이민자집단의 정체성의 위기 혹은 국민국가의 위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위기에 따른 정체성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개념과 형성과정, 존재 형태, 기능역할, 작동 메커니즘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

1.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오늘날 초국적 정체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글로벌화와 다문화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니시카와(西川長夫 2000, 23-25)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이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민국가의 전환에 따른 역사적인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정체성(identity)의 개념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유사한 지역에서 출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정체성론과 궤를 같이하여 정체성을 의미하거나 혹은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 다문화주의가 정체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는 196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가 탈국민국가, 즉 글로벌시대 초기의 지배적 국가이데올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글로벌시대 다문화주의가 이제는 언어=문화=민족(국민)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국민통합의 불가능성, 국민국가의 위기로 국민국가의 부정과 새로운 국민통합이론의 필요성, 그리고 동시에 정체성의 위기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의 관점이나 정책이 출현한 배경에는 대부분의 경우 중심적인 다수 민족집단의 지배에 대한 대항의식과 독점적 지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등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다문화주의정책이 국민통합의 새로운 형태를 지향하는 한 종래 정체성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과거 정체성의 개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종래 국민의 단일성이 국가를 지탱하고 국가의 단일성이 국민의 정체성을 보장했지만 이제는 다문화주의가 국민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한다는 논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슈츠(Schuts 1991)나 짐멜(Simmel 1994)의 외부자

의 인정(승인)에 대한 논쟁도 매우 유효하다. 먼저 짐멜(Simmel 1994, 285-290)에 의하면 어느 집단 가운데 새로 들어온 개인이라는 이방인에 대하여 “어느 장소에도 정착하지도 못하고 방랑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며 여행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방문과 떠남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王昊凡 2008, 9-10).” 이러한 방랑자의 특징은 개개의 요소와 유기적인 연대로 정착화를 도모하지 않는 이동성, 습관과 충성, 세례, 이해관계, 당파에 구속되지 않는 객관성, 보편적 특성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추상적 공통성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슈츠(Schuts 1991, 133-150)는 외부자에 대하여 “자신이 접근하고 있는 집단에 영속적으로 수용되기를 바란다거나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자”로서 한마디로 인정의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객관성과 의혹의 충성심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때 외부자의 객관성이란 집단문화의 부적응에 따른 차별적 경험에서 발생하고 충성심의 의혹은 생활양식으로서 집단문화의 미수용에 따른 편견으로부터 기인한다. 결국 외부자는 어느 집단 내 스테레오타입의 대상이 되거나 집단문화를 따르지 않는 의심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러한 외부자의 경험은 비단 이민자 집단뿐만 아니라 소속집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집단에 소속하려는 경우에도 공유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외부자들은 주류사회의 새로운 사실의 정의, 파악, 해석을 통해 일반적인 문화형태로 변형시켜나가기 때문에 이미 외부자는 주류문화에 적응하여 더 이상 외부자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테일러(Taylor 1996, 24)는 정체성(identity)의 개념에 대하여 승인(recognition)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정치학자이다. 이때 그가 승인(인정)의 정치에서 승인된다는 것은 비교적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 및 그들의 인권을 가리키고 있다. 그의 정치적 사상은 “인간이 해석적 동물이다거나 이해자체가 존재의 모습”이라는 명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계속해서 좀 더 높은 욕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계속 걸어가고 있다. 혹은 거기에 따라 걸어가려고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걸음은 동시에 기존의 자기정체성을 변화시켜나가는 과

정이다. 그 과정은 인생일대의 이야기로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Nicholas H. Smith, Charles Taylor 2002, 51-52). 이와 같이 테일러는 ‘승인’이 정체성을 유발시키지만 승인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근대적 정체성이라고 했으며 그 근간을 인간의 존엄과 순수성(authenticity)에 두었다(チャールズ・テイラー 2002, 126-127).

특히 테일러(Taylor 1996, 37-38)는 인간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체성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먼저 그는 개인화된 정체성(an individualized identity)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명시적 생활에 대한 이해, 개인 특유의 자신이 표출하려는 자기정체성으로 정의하였다(高田慎二 2009, 126-127). 테일러는 전근대적인 정체성이 집단적 정체성인 것에 비해 근대적인 정체성은 개인화된 정체성으로 개인의 자아형성문제로부터 출발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개인화된 정체성은 그들이 귀속하고 있는 특정 공동체 및 역사, 문화, 도덕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정체성(self identity)의 기초로서 킴리카(Kymlicka 1998)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관점을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국가정체성이란 국가단위가 아니라 민족단위의 정체성으로 모든 인간은 사회생활, 교육, 종교, 여가, 경제생활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다민족 간 정체성의 공유를 모색하는 것으로 정체성 개념의 근본적인 변용을 가져왔다.

쓰지 야스오(辻康夫 2013, 49-50)는 글로벌화시대 개인의 경제활동이 전략적 행위의 성격이 강하여 근면이나 연대 등의 미덕과 단절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소속문화나 집단에 대하여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관계성을 모색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단절과 관계성 그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 정체성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거나 유동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체성 논쟁은 결국 개인(혹은 이민자)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

정체성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의 자기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점차 집단적인 특수성을 띠면서 보다 추상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특성은 글로벌시대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표 1>은 글로벌시대 분화된 정체성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이 시시각각으로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에 제시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테일러가 제시한 정체성의 다양성(西川長夫 2000, 27)

개인화된 정체성(자기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자민족중심적인 자폐적정체성(독자적 정체성)	나 자신과 타자와의 대화적 정체성
배타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공민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치성 유동적 정체성 등
지역적 정체성	
에스닉 정체성	
대항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다원적 정체성	
중층적 정체성	
복합적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경험의 통일성, 연속성이 특정 모델이나 그룹, 문화 등과의 고정적인 정체성에 의해 확보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변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이 속하는 조직이 다양화되고 개인이 입수하는 정보도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던 집단의 권위가 약화되는 결과로서 개인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개인의 정체성은 고향의 상실상태라는 과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응하여 개인은 자기의 ‘고향’을 계속해서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정체성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현

재의 시점에서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의사결정과 동맹을 반복하는 내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가변성과 현재성은 분쟁이나 사회운동의 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동원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짧은 기간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 운동이 끝나면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거나 다른 운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순간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결합관계는 지역이나 중간집단, 민족, 시민사회 혹은 이익집단이나 공동체 집단과는 전혀 다른 이동시대의 새로운 공동모델을 구축하게 된다(西川長夫 2000, 34).

집합적(집단적) 정체성은 상호 교류하고 있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유되는 정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방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행위가 발생하는 기회나 구속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집합적 정체성은 행위가 공통의 인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그것에 의해 행위자는 주변 환경을 평가하고 행위의 손득을 계산할 수 있다. 집합적 정체성은 불확실성, 변화, 차이화를 특색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체성의 불안정, 경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해체되고 있는 사회의 유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스튜어트 홀(Stuart Hall 1998, 101-111)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적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이나 통합의 불안정한 지점을 말한다. 또한 초월적인 민족기원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정체성의 정치, 위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홀(Sturt 1996)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하여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형성과정에 있으며 내부에서 구축되고 있는 ‘생산물(구축물)’로서 정의하였다.

국가적 정체성은 자연적인 사실보다는 만들어진 사실에 가깝다. 국가적 정체성의 기초적인 요소는 조상의 창설자, 역사, 영웅, 언어, 기념비, 풍경, 민속 등이 속한다. 글로벌시대 애국적인 과감한 행동, 사상, 기술의 초국가적 교환이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이고도 유사한 정체

성을 탄생시켰다.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치조직의 형태인 국가는 전통의 숭배와 집합적 유산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들 국가적 정체성은 새로운 공동체 미디어에 지지를 받은 집합적이고 자발적인 운동에 유래하고 있다. 국가적 정체성이 단수로 사용될 경우 추상적인 한 국가를 상징하며 복수로 사용될 경우 EU와 같은 유럽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西川長夫 2000, 3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형태는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정체성 개념의 확대와 형성과정 분석

1. 정체성 개념의 개인적 국가적 레벨 확대

정체성의 개념은 개인의 생물학적 개념에서 점차 추상적인 민족과 국가 정체성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레벨에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프로이트와 에릭슨이라는 연구자에 의해 탄생되었다(Erikson 1981, 200). 에릭슨(Erikson 1950)의 정체성 관련 저작으로서 『유아기와 사회』는 1950년에 출판되었고 『자아동일성: 정체성과 라이프 사이클』은 1959년에 출판되었다(Erikson 1959). 이 책의 출판 이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1960년대 들어서 주목받게 되었고 일반인들 속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1960년대 말 베트남전쟁의 패배, 경제적 불황과 실업증가, 경제적 호황기 빈부격차의 확대, 소비자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의 동요와 불안, 아노미상황, 가족붕괴, 정치적 부패와 국가 위신저하, 흑인해방, 공민권운동 등 다양한 소수민족집단의 자기주장, 페미니즘, 1968년에 절정에 달한 학생운동, 저항문화 등 최근 정체성에 관련된 사회적 배경은 민족의 이동에 따른 글로벌 다문화주의와 깊은 관련성을 함의하고 있다.

정체성의 용어확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 혹은 자아가 인생의 경험 전체를 통하여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둘째, 이성의 지평에서 규칙으로서 동일한 것, 셋째, 모든 사고의 대상에 구비된 $A=A$ 라는 사실, 넷째, 인식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합치할 것 등이다. 단적인 예로 주변에서 나 자신의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계약, 소유, 권리, 의무 등은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때문에 동일성의 문제는 인격, 신, 세계의 근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실천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 영토(국경), 주권의 동일성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국어, 민족, 국가적 신화의 동일성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국민국가는 국적에 의해 국민, 국경에 의해 영토, 그리고 국민의 문화와 언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납세, 징병, 교육, 국민 개개인의 관리를 통해 국가를 유지해 왔다. 또한 국민국가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 국가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동일성 원리의 지배를 이상적인 국가로 표출해왔기 때문에 정체성의 원리가 맹위를 떨치기도 했다. 현대사회의 정체성은 융의 이론, 20세기말 프로이트 이론을 전개한 에릭슨에 의해 발전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정체성 형성과정과 역할기능

에릭슨(Erikson 1959, 119)은 생물학적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청년기 후기를 정체성의 형성시기로 보았다. 그는 정체성의 형성에 대하여 청년아동기를 정체성의 종결단계로 규정하고 복수의 동일화를 하나의 새로운 동일화에 종속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다양한 자기를 자아중심적으로 통합시킬 때 느끼는 자기일치의 감각을 정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청년기 후기의 정체성 형성은 자기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자기를 회고하면서 새로운 자기를 형성하는 자기형성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느끼는 감각이 정체성의 감각이라는 것이다. 에릭슨에 의해 제창된 이러한 정체성 이론은 사회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충분히 인식한 후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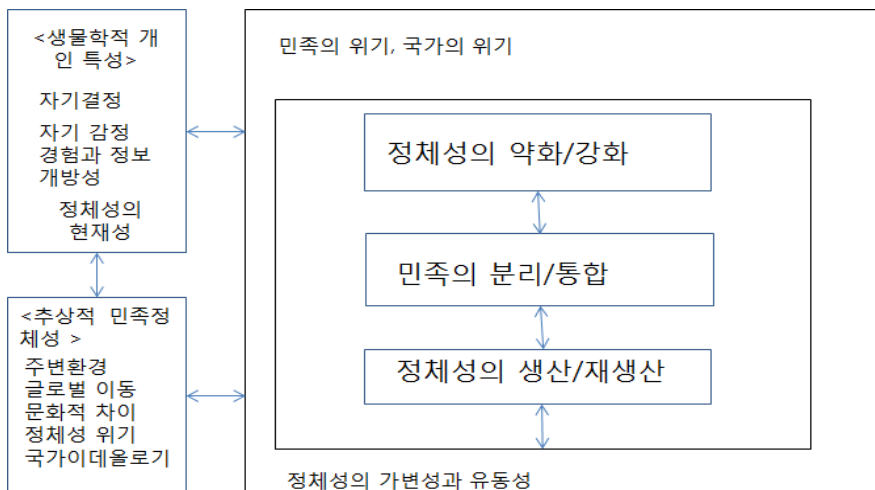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체성 형성과정 패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민족정체성이나 혹은 국가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의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데 이때 지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결정이다.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기결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정체성 형성과정을 검토해야한다.

정체성의 형성은 자기 시점에서 지각하고 타자의 시점을 내재화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자기와 타자와의 관점의 차이를 상호조정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때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자기인식을 관계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자기결정의 배후에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정체성 형성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의 감정도 중요한데 정체성 형성은 다양한 상황가운데 타자나 사회라는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개인이 타자나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 타자를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민자가 어떤 관계성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환경가운데 어떻게 자기결정을 해나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래 〈그림 1〉은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가변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체성형성은 생물학적 특성과 추상적인 정체성의 결합할 수 있다.

고전적인 의미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특성이 강한데 정체성의 방향에 대한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자기감정의 의지가 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 표현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입수하고 획득함으로써 개인들은 지금 현재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형성과정과 역할기능(畑野快 2010, 32)



그러나 글로벌시대 확대 전파된 정체성의 특성은 추상적인 민족개념의 정체성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민족이나 국가의 추상적 개념의 정체성 등장은 글로벌화와 민족이동, 다문화주의 출현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의 확연, 민족과 국가에 의한 정체성의 위기 초래현상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의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초국적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고 그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특성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체성의 다양성 사례: 중국조선족과 일제인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 정체성은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가변성의 결과 다양한 정체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초국적 정체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에릭슨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청소년기 개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기 동일성이라는 정체성개념을 주장한 이후 국내외 관련 연구들이 대거 등장했다. 최근에는 심리학을 비롯한 철학, 사회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교육학 등 연구 분야가 다양한 학문적 범위와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관점도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개인의 정체성, 집단의 정체성,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국가적, 성적, 직업적 정체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정체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릭슨의 1950년대 자기동일성이라는 정체성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1960년대에는 성, 민족, 직업, 가족 등에 초점을 둔 정체성 연구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성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이 대거 등장하여 정체성의 유형화 작업들이 한창 이루어졌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민족정체성이나 사회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의 등장배경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가령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 해방운동이나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한창이었고 이는 1970년대 성정체성 관련 연구들의 대거 등장배경이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인종, 민족, 젠더, 성적 지향, 장애 등 사회적으로 억압받기 쉬운 특성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들과 연합하여 자기들의 고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유행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의 급증은 세계각지에서 민족분쟁이 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丸井ふみこ 2012, 193-209).

· 대략 1970년대 이후에는 사회학이나 정치학분야에서 디아스포라 집단 관련 정체성이 주목받게 되면서 최근까지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착목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특히 복수의 민족이 상존하는 지역에서의 민족정체성 및 국가정체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서도 세계의 특정 지역이나 민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령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해방 전후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와 그 자손, 해외 단기 체류자 및 유학생 등 재외국민, 중국조선족이나 고려인 디아스포라 등 한국 이주동포나 외국인, 한국체류 유학생,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 고려인 귀국자 및 그 자녀, 중국조선족 및 그 자녀 등 다양한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 최근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이문화 접촉기회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 관련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관련 연구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접근하여 문화 간 이동이나 이에 따른 이문화 간 접촉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이나 혼란, 변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일례로 중국조선족과 일제인의 초국적 정체성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하여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강수옥(2013, 89-101)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조선족들은 1952년 이후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의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왔다. 중국조선족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도시나 해외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그들 조상들의 땅이라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았다. 강수옥(2013)은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해 황유복(2014),¹⁾ 김호웅(2010), 김강일(2010, 133-134)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이들 세 가지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정체성”, “이중정체성”, “제3의 정체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황유복

1)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담론” <http://cafe.daum.net/kctown/mVlw/121?q>(최종검색일: 2017/07/30).

(2014)일 주장하는 조선족의 정체성은 ‘국민정체성’으로 민족과 국적을 분리한 중국계 조선족이라는 ‘우리는 100% 조선족이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는 한반도의 민족적 뿌리와 중국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에서의 주류집단으로의 편입과 중국계 조선족으로서 한국과의 가교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호웅(2010)은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 근대 디아스포라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중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조선족은 정치적으로는 중국화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한반도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 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주류민족의 장점을 수용하여 자립 민족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강일(2010)은 조선족의 ‘변연문화론’을 주장하여 ‘제3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조선족의 이중문화적 성격을 활용하여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의 취사선택으로 제3의 조선족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초국가시대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은 과제민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은 기존 연구성과를 통해 일제인의 초국적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일제브라질인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일제브라질인들은 1990년대 일본정부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이민수용정책으로 3D분야에서 종래의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많은 일제인들을 브라질 현지에서 직접 수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노동자로서 일제브라질인들을 적극 수용한 이유는 브라질 국적이지만 일본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반대였다.

· 무라이 타다마사(村井忠政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일제브라질인들이 도일하기 전에는 일본인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도일 후에는 일본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브라질인 정체성을 지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100% 일제브라질인 정체성을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황유복(2014)의 조선족 정체성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村井忠政 2007, 23). 이러한 일제브라질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임영언(2016)의 연구는 일제인의 초국적 정체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 바 있다(임영언외 2016, 283-306). 그는 일제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을 분석하여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제인 정체성 지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들 초국적 정체성 유형을 상세히 살펴보면 제1유형은 일제인 노동자들이 도일하기 전 브라질에서 지향하는 ‘일본인 정체성’을 지칭한다. 제2유형은 일제인 노동자들이 도일 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적 정체성(Counter Identity)으로 ‘브라질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3유형은 일본에서 일제인의 정착이 증가하고 정체성이 다양화되어 독자적인 ‘일제인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 이상과 같이 글로벌시대 민족의 초국적 이동은 인종과 문화의 충돌로 인해 그들 특유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를 통해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재생산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IV. 결론

·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초국적 정체성의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 정체성의 작동메커니즘, 형성과정과 역할기능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초국적 정체성의 경향은 글로벌화와 다문화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 특히, 이 연구는 중국조선족과 일제브라질인을 사례로 최근 초국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과 다양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과 타자와

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글로벌시대 출현한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상호작용,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끊임없는 의미확대와 재생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 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의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이나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의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제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제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그들이 처한 입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제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정체성의 개념이 초기 생물학적 개인적 레벨에서 추상적인 민족 정체성의 개념으로 급속히 전환된 배경에는 처음부터 정체성이라는 개념 속에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정체성의 개념이 글로벌시대 각 민족이나 국가에 급속히 전파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이동시대 정체성의 위기로 자본주의의 위기와 변질, 국민국가의

위기와 변질과도 관련되어 있다. 결국 정체성의 개념은 국민국가와 동일성을 강조하는 국가이데올로기로서 내셔널리즘이나 국민국가의 부활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국가를 비판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글로벌시대 다문화주의는 가변성이 강한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고정적인 문화개념이나 민족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때 문화적 정체성은 국적을 초월하여 문화적 국경을 초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정체성(Diaspora Identity)은 “항상 변화와 차이를 통해 자기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기 때문이다.”와 같이 알베르토 메르치(アルベルト・メルッチ、山之内靖 1997, 29-30)가 ‘현재에 살고 있는 유목민’이라고 정의하는 정체성 개념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이동 시대에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체성이 분쟁이나 사회운동이라는 집단행동 시 나타나는 정체성과도 유사한 유동성과 다양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수옥. 2013. “중국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7(1).
- 김강일. 2010. “조선족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에 관한 연구,” 『동북아 공동체연구회』.
- 김호웅. 2010.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외한인학회포럼 발표논문(2010. 2).
- 임영언 외. 2016. “일제인의 모국연계와 민족정체성 지향에 관한 조사 연구,” 『일본문화연구』 58, pp.283-306.
- 황유복. 2014.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담론”: <http://cafe.daum.net/kctown/mVlw/121?> (검색일: 2017.07.30).
- 알베르트·멜луч치, 山之内靖訳. 1997. 『現在に生きる遊牧民(ノマド)―新しい公共空間の創出に向けて―』, 岩波書店.
- エリック·H·エリクソン. 1981. 近藤邦夫訳, 『現具と理性』, みすず書房.
- 王昊凡. 2008. 『多文化主義をめぐる公共性の問題に関する一考察』, 2008年度名古屋大学学生論文コンテスト優秀賞受賞.
- ステュアート·ホール, 小笠原博毅訳. 1998. “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ディアスポラ,” 『現代思想』 3月号.
- 高田慎二. 2009. “チャールズ·テイラーの思想構造: 解釈学から政治理論へ,” 『北大法政ジャーナル』 16.
- 畑野快. 2010. “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プロセスについての一考察―自己決定を指標として―,” 『発達人間学論叢』 第13号.
- 辻康夫. 2013. “多文化主義論の書類型の検討―複合的アプローチに向けて―,” 『法政理論』 第45巻第3号.
- テイラー. 1996. “多文化主義·承認·ヘーゲル,” 『思想』 No.865.
- 西川長夫. 2000. “多文化主義とアイデンティティ概念をめぐる二、三の考察―アイデンティティ論のために―,” 『言語文化研究』 12巻3号.
- 丸井ふみこ. 2012. “アイデンティティ研究の動向―異文化接触·言語との関係を中心に―,” 『言語·地域文化研究』 18, pp.193-209.
- 村井忠政. 2007. “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移住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容―日系ブ

- ラジル人の<デカセギ>現象を事例として,”『人間文化研究所年報』、p.23.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Nicholas H. Smith, Charles Taylor. 2002. *Meaning, Morals and Identity*, Cambridge: Polity Press, pp.51-52.
- Schuts, 渡辺光・那須壽・西原和久訳 1991. “よそ者—社会心理学の一試論” Brodersen 編『アルフレッド・シュッツ著作集第3巻社会理論の研究』. マルジュ社.
- Simmel, 居安正訳. 1994. 『社会学(下)』. 白水社.
- Stuart Hall and Paoul du Gay. 1996.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Publication.
- Will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투고일 : 2017년 7월 31일 · 심사일 : 2017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11일

* 임영언은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경제사회학전공)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韓國人企業家:ニューカマーの起業過程とエスニック資源』(북코리아, 2004), 『재일코리아 기업의 경영활동』(북코리아, 2006), 『일계인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초국적 네트워크』(북코리아, 2013),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북코리아, 2014), 『재일코리아 기업의 형성과 기업가정신』(북코리아, 2015), 『일계인디아스포라: 문화적응과 정착기제』(북코리아, 2017), 등이 있다.

* 김한수는 현재 전북과학대학교 호텔관광바리스타과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은 “재일코리아 기념비 건립에 의한 민족정체성 확립과 문화공공외교 성과 고찰” 『일어일문학』 68, (2015), “향토음식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지역파급효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문화관광연구』 14권 2호(2012), “지역주민의 관광정책에 대한 사회정치적 제어능력과 참여형태의 관계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38권 3호(2013) 등이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national Identity of Diaspora and Diversity

Yim, Young-E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Han-Soo

(Jeonbuk Science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ppearance of the global generation transnational identity and forming process, existence aspect, functional role, and on the actuating mechanism, and etc. The results about the transnational identity of Diaspora and diversity are as follows. First, as to the transnational identity, the emigrants had been being determined by the relation with the accreditation and how type had been deal with one's decision about the self-identify. Second,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emigrant, interaction, and unstable status political support etc. various factors were combined and the diversity of the Diaspora identity showed. Third, the identity concept had been performing the function in the more expanded meaning called the nation and nation through the continuous meaning expansion than the individual as the national ideology. Fourth, the transnational identity of Korean-Chinese was specialized into the nation identity, double identity, and 'the identity of the third' etc. Fifth, the transnational identity of the Nikkei-Brazilian appeared for Japanese identity, Brazilian identity, and Nikkeijin identity etc. in Japan. In conclusion, the Transnational identity of the Diaspora is reproducing the identity of the emigrant, it suggests through the differentiation in the settlement and exclusion.

Key words : Transnational Identity, Diversity, Korean-Chinese, Nikkei-Brazilian, Differentiation and Exclusion